

예술이 빛어지고 발효되는 곳,

Kultur- brauerei

독일 대안 문화공간 'Kulturbrauerei' 문화제조(소)의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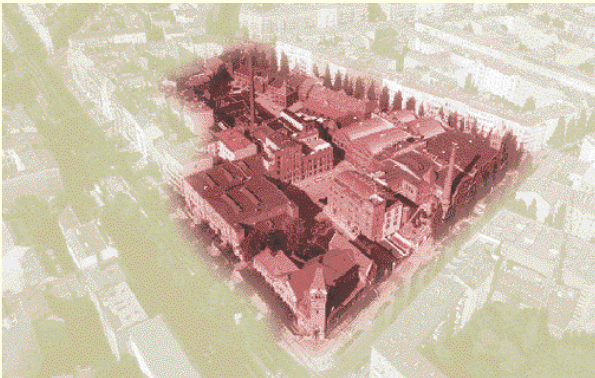
김 은 지 · 문화예술사가 | 국제전시기획 논평가

1. 건축, 역사

역사

지하철 2번 노선역, 에버스발더(str.Eberswalder Strasse)에서 내려 단징어(Danzinger Strasse) 거리를 따라 5분 정도 걷다 커브를 돌면, 황색벽돌로 지어진 건물 입구가 'KulturBrauerei'라는 간판과 함께 눈에 들어온다.

베를린 도심인 프렌츨라우어 베르크(Prenzlauer Berg) 구 - 지금은 그야말로 한창 '뜨는' 신문화 예술 무대로 세계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통용되는 지역구 - 에 위치, 이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및 교류를 위한 자력의 장소로 널리 알려진 그 유명세에 비해 적벽돌의 외곽과 황벽돌 건물 입구의 첫 인상은 그의 즉물적 모습으로 인해 차라리 겸손해 보인다. 건물 출입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차마 기대치 못한 넓은 뜰과 그 뜰을 둘러싼 긴 적벽돌 건물들의 앙상블이 비로소 건축 전체의 스케일을 감지하게 한다. 25,000평방미터의 면적 위에 길게 이어진 20여 개의 건물들은 바로 관객의 시선과 흥미를 끈다. 이유는 황, 적벽돌의 조화에 의한 말쑥하게 정돈된 하지만 화려한 외형으로 19세기 전형 산업건축물로 역사적 의미에서만



베를린에 위치한 다수의 '대안 문화 공간' 가운데 공공 기관이나 정부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문화 공간과는 구별되는 장소 중의 하나인 'KulturBrauerei'.

폐허 직전의 유명 맥주회사의 양조장을 개조해 오픈한 이 대안 문화 공간(Alternative Culture Space)은 현 베를린의 도심부 - 동독 전 동베를린에 속하던 구 - 에 위치해 젊은 국제 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 무대로, 더욱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보다 많은 창작 작품 소개 기회 및 젊은 인재 발굴의 중요한 장소로 성공적 운영을 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국제 예술들이 이곳 KulturBrauerei에서 소개되고, 어떠한 독립적 운영 방식으로 대안 문화 공간의 의미와 성공적 이미지를 더해가는지, 더불어 어떠한 공간적, 건축학적 특징이 다양한 스케일의 창작 예술형태들의 완성적 효과를 도우는지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예술 행위들의 무대를 마련하는 공간과 건축으로 시작을 하기로 한다.



지하철 2번 노선역, 에버스발더(str.Eberswalder Strasse)

'KulturBrauer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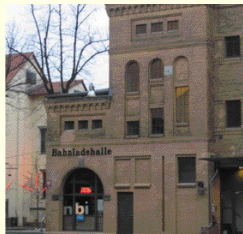


베를린 도심인 프렌츨라우어 베르크(Prenzlauer Berg) 구

이 아니라, 건물들 정면 지붕 아래의 커다랗게 자리한 다양한 알파벳 단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문화 대안 공간은 현재 총 40,000평방미터 면적을 문화 예술 무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곳 건축물의 역사는 120여 년이다.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제조사인 슈트하이스(Schultheiss)의 양조장으로 1887년 시공되어, 1900년 경엔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맥주(일명 '라거비어'로 통이나 탱크에 저장하는 동안 발효가 완료되어 마실 수 있는 맥주) 회사 Schultheiss의 양조장으로 통하던 이 Brauerei가 폐쇄된 것은 1967년이다. 이후 20여 년이 넘는 1998년 개조 시기까지 계속 방치 상태에서 거의 폐허 위기에 처해 있다가 2001년 초에 KulturBrauerei로, 문화예술(음악, 그림, 문학, 연극, 춤, 영화 등)의 활동무대로 그 화려한 등장을 했다.



25,000평방미터의 면적 위에 길게 이어진 20여 개의 건물들은 바로 관객의 시선과 흥미를 끈다.



19세기 전형 산업건축물로 역사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건물들 정면 지붕 아래의 커다랗게 자리한 다양한 알파벳 단어들 이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건축학적 컨셉

대안 문화 공간의 공식 명칭 KulturBrauerei는 결국 독일 문화의 한 부분인 6000(?)년 전통의 맥주, 그 맥주가 빚어져 생산되는 장소에서 예술이 빚어지는 과정을 설명, 대치하는 은유론적 어의학적(semantic) 합성어 ‘문화’(Kultur)와 ‘양조(소)(Brauerei)’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공식 명칭을 염두에 둔 듯, 또한 1974년 이 Brauerei 건축물이 기념비로 지정(19세기 산업건축물을 대표하는 전형으로)된 사안을 감안 한 듯, 건축 개조 당시의 컨셉은 건물 외형에 관한 원래 Brauerei의 건축들을 마치 기념비처럼 살린 채, 건물 내부는 기능적인, 하지만 고전의 양식을 갖춘 현대 문화 공간 무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해서, 출입구를 들어서면 눈에 띄이던 건물 정면 지붕 아래의 단어들-당시 맥주 양조장의 각각 생산 부서의 이름들을 설명하는 표기들-이 복구 되었고, 이는 20여 개의 새로이 정돈된 황, 적벽돌 건물들과 함께 당시 19세기 도시 산업화 시기에 대한 노스탤지어(Nostalgia)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외형 컨셉에 맞서 건물의 내부 공간 개조의 컨셉 또한 급급적 19세기 산업건축물의 원 평면도에 따라 넓게 트인 공간과 높은 천정(최대 6미터)의 구조를 유지했다. 철저히 절제된 듯 보이는 넓고 높은 내부 공간 구조는, 군더더기 없는 벽돌 건물 내의 무대로서 예술 행사 시 모든 포커스를 개최되는 예술들의 진행성격에 맞출 수 있게 한다. 즉, 이는 결국 공간의 개념을 막연한 공간적 대여 무대라는 점에서 탈피, 개최되는 예술 공연 및 전시들의 전달 최대 효과와 완성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 문화예술 장소들

문화 예술 컨셉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공간적, 건축학적 의미를 등에 업은 대안 공간의 무대들은 크게 3곳, 즉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으로 나누어진다. 이 외에 작업실 및 음악 스쿨 등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제조사인 슈트하이스(Schultheiss)의 양조장



건축 개조 당시의 컨셉은 건물 외형에 관한 한 원래 Brauerei의 건축들을 마치 기념비처럼 살린 채, 건물 내부는 기능적인, 하지만 고전의 양식을 갖춘 현대 문화 공간 무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의 성공적인 운영은 이 대안 문화 공간의 의미를 더한다. 그럼 이러한 문화 예술 행사 공간인 3곳(공연장, 전시장, 영화관)은 어떠한 공간 컨셉으로 국제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 무대를 마련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공연장에선 음악회, 연극, 문학 낭독회 및 performance 등이 개최 된다. 음악 공연의 장르는 Jazz, Rock, Classic, Pop, World-Music, 연극 공연의 종류는 Music-theatre, Dance-theatre, Speech-theatre, Figures-theatre로 나누어 진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개최될 수 있는 공간은 총 6군데로, 대표적인 곳은 a)알테 칸티네(Alte Kantine), b)소다 살롱(SodaSalon), c)케셀하우스 (Kesselhaus)와 이의 부속 건물인 마쉬넨하우스(Maschinenhaus). 이 중 c)케셀하우스는 다방면 공연장(음악, 연극, 문학, 퍼포먼스)으로 800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의 문화 예술 행사 공간들에 있어 가

장 중요한 곳 중 한 곳으로 인정, 통용되는 이곳은 예술 분야 중 특히 음악회, 국제 음악 공연장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다(최근의 공연으로는 10명의 멤버로 구성된 RockMusic 그룹(프랑스) Babylon Circus의 실험적 음악 콘서트로, 전통 동유럽의 민요와 신사실주의 음악요소를 섞어 Jazz, Dub, Punk의 연결로 모순 속의 조화, 에너지와 예술의 경계를 보이는 시도를 해냈다).

a)알테 칸티네와 소다 살롱은 문학의 밤을 위한 곳으로, 알테 칸티네에선 매주 월요일 저녁 전위적 스타일의 현대 문학낭송 및 토론의 시간을 개최한다.

b)이에 비해 소다 살롱은 클래식에 입거한 컨셉으로 1920년대 활성을 띠던 베를린 문화와 시대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 외에 Loungeparty, Jazz의 밤, 연극 상연을 연상케 하는 문학시 낭독의 밤 등 개최의 공간을 마련해 대도시 사교계의 문화를 접하게 한다.

(2) 전시장은 순수 미술작품들의 갤러리 역할을 하는 곳으로, 현대 회화, 사진, 조각 및 또한 설치 미술의 전시 공간으로 이용된다. 3곳들의 명칭은 a) 갤러리 키노(Galerie am Kino), b)갤러리 페르 데 슈탈(Galerie am Pferdestall), c)문화양조 팔레이스(Palais in der Kulturbrauerei) 등이다.

a) 갤러리 키노는 300 평방미터의 넓이와 6미터 높이의 천장 공간을 전시 장소로 제공한다. 고전의 건축 양식과 현대식 설비의 컨셉으로 개조된 긴 직사각형의 내부 공간 구조가 특징이다. 미술 각 장르들 그리고 다양한 예술 양식들, 즉 예를 들어 인상주의적 작품에서 네오다다이즘 형태의 작품 성향에 이르기까지, 또한 동양의 정적인 묵화예술에서 서구의 도발적 전위예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양식의 예술 작품들이 어떠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전시되어 질 수 있는 또다른 공간적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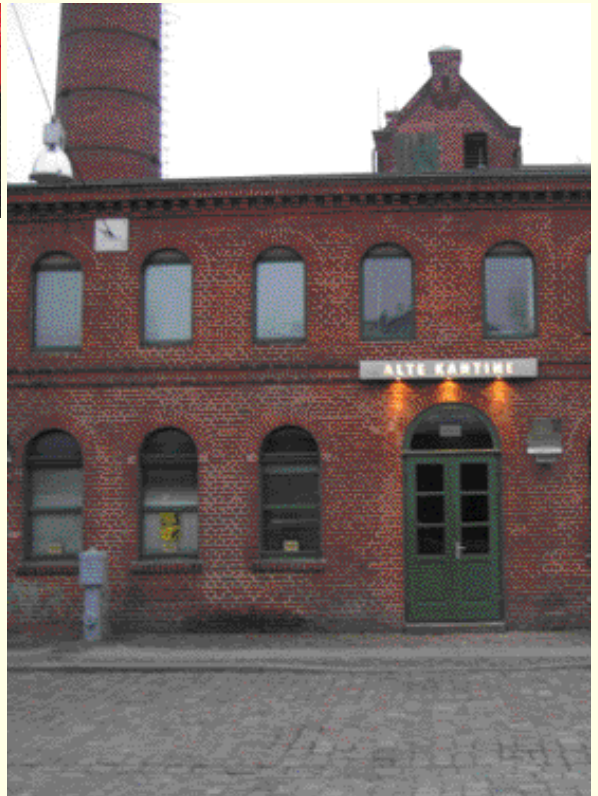
케셀허우스는 다방면 공연장(음악, 연극, 문학, 퍼포먼스)으로 800여 명의 관객을 수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알테 칸티네와 소다 살롱은 문학의 밤을 위한 곳으로, 알테 칸티네에선 매주 월요일 저녁 전위적 스타일의 현대 문학낭송 및 토론의 시간을 개최한다.



소다 살롱은 클래식에 입거한 컨셉으로 1920년대 활성을 띠던 베를린 문화와 시대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b)갤러리 페르데슈탈의 공간 컨셉은 특히 문화 이벤트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선 전시만이 아닌, 문학시 낭독, 연극, 퍼포먼스, 세미나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언급될 만한, 성황리에 치러졌던 전시 중의 하나인 <Transvanguard>. 영국 런던의 저명한 갤러리 옥토버 갤러리(October Gallery)에서 기획했던 실험적 예술작품들의 전시로, 현대 예술의 흐름을 각 장르별로 나누어 특히 5대륙의 국제 예술가들이 참가했다. 많은 관심 속에 성공리에 치러진 이 전시는 2,000명이 넘는 관람객의 방문을 맞이했다.

c)문화양조 팔레이스는 긴 직사각형의 내부형태의 Galerie am Pferdestall와는 달리 정방형의 내부 공간 구조를 이루며, 총 350 평방미터의 거대한 실내 면적을 가지고 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다양한 현대식 기술장비시설을 갖추어 어떤 형태의 문화행사든 개최 가능하게 한다. 70 평방미터는 전시 전용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여름시즌을 대비한 200 평방미터의 야외 전시장 및 조각정원이 예술가들의 창작을 기다리고 있다.

(3) 최고의 현대식 영화상영 기술로 구비된 영화관은 8개의 영화 상영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5,900 평방미터의 면적은 1,500석을 실어 내며, 가장 큰 상영관은 440석으로 채워져 있다.

상영되는 영화들은 할리우드(Hollywood-Mainstream) 식의 트렌드 기호들은 배제한 것들로, 수준의 예술 영화(art film) 상영을 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연극, 미술)작업실 람바잠바(Rambazamba), 존넨우어(Sonnenuhr)는 장애인(주로 저능의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작업 공간으로, 특히 람바잠 바에서 준비 기획된 장애 예술인 연극은 국제적 인정을 얻고 있다. 공연되는 연극의 주제들은 코믹에서 비극, 로맨틱 등 문학 작품의 연극화까지 모두 다루어지고, 공연 형태 또한 전형적 형태에서 전위적, 또한 뮤지컬에 가까운 형태 등 폭넓은 범위에서 상연 되어진다. 연극 전체의 흐름과 악센트를 위해



갤러리 키노는 300평방미터의 넓이와 6미터 높이의 천장 공간을 전시 장소로 제공 한다.



갤러리 페르데슈탈의 공간 컨셉은 특히 문화 이벤트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양조 팔레이스는 긴 직사각형의 내부형태의 Galerie am Pferdestall와는 달리 정방형의 내부 공간 구조를 이루며, 총 350 평방미터의 거대한 실내 면적을 가지고 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다양한 현대식 기술장비시설을 갖추어 어떤 형태의 문화행사는 개최 가능하게 한다.



최고의 현대식 영화상영 기술로 구비된 영화관은 8개의 영화 상영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5,900 평방미터의 면적은 1,500석을 실어 내며, 가장 큰 상영관은 440석으로 채워져 있다. 상영되는 영화들은 할리우드(Hollywood-Mainstream) 식의 트렌드 기호들은 배제한 것들로, 수준의 예술 영화(art film) 상영을 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문 연극배우들이 함께 극을 이끌어 간다. 연극 외에 미술, 도자기, textile-아틀리에 및 목공예 작업실, 사진실 그리고 음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창작된 작품들은 램바잠바 혹은 존넨우어 작업실의 예술품들로 전시 공연되어진다.

(5) 음악 스쿨인 'Ton Art' 는 Bass, Drums, Piano/ Keyboard, Vocal, E-Gitarre, Acustik-Gitarre, Africa - nic Percussion 등의 분야에서 초보자 및 전문 음악가들의 활동을 돕는 곳으로, 베를린의 타 뮤직 스쿨들과의 교류 등 활발한 활동에 있다.

이 밖에 어린이 문화 개최 장소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름 시즌엔 <StreetTheatre Festival>을 7월에, <Klassik Open Air>를 8월에 개최한다.

3. 대안 공간 운영

운영 컨셉

대안 문화 공간 KulturBrauerei의 운영 방식은 2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공간 대여 형식, 둘째는 KulturBrauerei 자체의 프로젝트팀의 문화예술 행사 기획이다. 일정 기간 공간 대여기회는-공간 활용의 기회를 최대화 한다는 운영 컨셉에 따라-문화 창작예술 컨셉 제출자 모두에게 열려있다. 두 번째는 스폰서에 의한 운영 컨셉으로 문화예술을 경제와 사회 사이의 매개로 정의해 스폰서링을 상호이익을 위한 비즈니스로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한 업체의 특정문화예술 단체 및 행사개최 서포트는 업체의 사회 문화적 참여(engagement)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상승의 효과를 떠나 간접적인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해석이다.

이 두 도전적인 운영 컨셉으로 KulturBrauerei는 대안 문화 공간으로 지속적 발전을 오픈 후 6년째 계속하고 있다. 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장점으로 특히 여름 시즌의 주말들은 방문 관람객의 수가 20,000명을 넘어선다. ●●●●



연극 외에 미술, 도자기, textile-아틀리에, 및 목공예 작업실, 사진실 그리고 음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창작된 작품들은 램바잠바 혹은 존넨우어 작업실의 예술품들로 전시 공연되어진다.



어린이 문화 개최 장소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름 시즌엔 <StreetTheatre Festival>을 7월에, <Klassik Open Air>를 8월에 개최한다.